

추천 3.

여름 꽃 회화나무

김호준 박사 / 그린과학기술원 원장

■ 회화나무 그들의 꿈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때 누렸던 부귀영화도 돌이켜보면 덧없는 한낱 꿈에 지나지 않는다는 뜻으로 남가일몽(南柯一夢)이요, 일장춘몽(一場春夢)이라고도 한다. 남가일몽이라는 말은 이공좌(李公佐)의 전기소설 「남가태수전」에서 유래된 말이다.

당나라 9대 황제 덕종 시절 강남 양주 땅에 순우분(淳于棼)이란 사람이 살고 있었다. 집 마당에는 아름다리의 큰 괴목(槐木, 회화나무)이 있었는데, 여름이면 친구들과 어울려 나무 밑에서 술을 마시며 즐기곤 했다. 어느 날 순우분이 술에 취해 회화나무 밑에서 잠이 들었는데, 관복을 입은 두 남자가 나타나 옆드려 절하며 “저희는 괴안국(槐安國)에서 온 사신으로 왕명을 받아 대인을 모시러 왔습니다.” 라는 것이었다.

순우분이 사신을 따라 회화나무 구멍으로 들어가니 성문 현판에 금으로 새긴 대 괴안국(大槐安國)이라는 화려한 성이 나타났다. 성문 앞에는 국왕이 기다리다가 반가이 맞이했다. 왕궁으로 들어간 순우분은 부마가 되어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남가군(南柯郡)의 태수에 임명되었다. 남가군은 도성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서 땅이 넓고 인구가 많은 요지였다. 그럼에도 그간의 태수들이 정치를 잘못하여 백성들은 도탄에 빠져 있었다.

태수로 부임한 그는 공명정대한 법 집행을 하고 세금과 부역을 가볍게 하는 등 선정을 베풀어 남가군은 안정을 찾았다. 백성들은 태수를 기리는 송덕비를 세우는 등 감사와 칭송이 자자했고 그곳에서 아들 다섯, 딸 둘을 낳아 20여 년간 행복하게 살았다.

왕은 태평하게 고을을 다스린 그의 치적을 높이 사 재상에 앉혔다. 재상이 된 순우분은 남가군에서처럼 국정을 이끌고 그의 명성은 날로 높아졌다. 하지만, 얼마안가 사랑하는 아내가 병으로 죽고 설상가상으로 이웃나라 단라국(檀羅國)이 침공해왔다. 순우분은 군을 이끌고 적군과 힘껏 싸웠으나 참패하고 말았다. 패전의 충격으로 여론이 뒤숭숭해지고 관리들은 패전의 죄를 물어 그를 내쳐야 한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지존(至尊)의 상서로운 예기가 손상되었으므로 도성을 옮겨야 한다는 상소까지 올리게 되었다.

왕도 하는 수 없이 그에게 근신 명령을 내렸다. 순우분이 억울함을 호소하자 국왕은 “천도해야 할 조짐이 보인다.”며 그에게 고향에 다녀오라 했다. 순우분이 “저의 집이 여긴데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하고 반문하자 “그대는 본시 속세사람으로

여기는 그대의 집이 아닐세.” 하며 빙그레 웃었다. 하는 수 없이 관원의 안내를 받아 고향에 돌아온 순우분이 눈을 떠보니 회화나무 밑이었다. 그때서야 그간의 일들과 부귀영화가 모두 꿈이었음을 깨달았다.

꿈이 너무도 생생하여 회화나무 밑동을 살펴보니 커다란 구멍에 있었다. 구멍으로 들어가니 넓은 공간에 무수한 개미들이 왕개미를 둘러싸고 있었는데, 그곳이 바로 괴안국였고 왕개미는 국왕이었던 것이다. 다시 구멍을 더듬어 남쪽으로 뺀 가지를 따라가니 꿈속의 남가군 형상과 똑같은 네모 난 개미집이 있었다.

날이 저물어 순우분은 개미집을 원상태로 고쳐 놓고 집으로 돌아왔다. 다음날 아침 일어나 회화나무 구멍을 살펴보니 간밤에 휘몰아친 비바람으로 개미굴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개미 또한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다. 「천도해야 할 조짐」이란 바로 이런 것이었나 싶었다. 크게 깨달은 순우분은 쾌락을 멀리하고 도학(道學)에 정진하며 여생을 보냈다고 한다.

2. 회화나무

(1) 형태적 특성

■ 회화나무

- 학명 : *Sophora japonica* L.
- 영명 : Pagoda tree, Chinese scholar tree
- 한명 : 榿木, 榿花木, 榿花樹, 槐木, 槐花木, 槐樹, 學者樹

■ 분포

회화나무는 장미목(目) 콩과(豆科) 콩아과(亞科)의 낙엽활엽교목이다. 우리나라 중부와 남부지역 전역에 식재 분포하는 나무로서 수령이 높아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나무가 많다. 최근에는 기념수와 정자목 외에 공원수와 가로수로 심고 있으며, 원산지는 중국이고 일본에도 식재 분포한다.

■ 회화나무 이야기

회화나무는 예부터 선비나무라 하여 학자수(學者樹)라고 불렀다. 중국 주나라의 신분층은 천자(天子), 제후(諸侯), 대부(大夫), 사(士), 서민(庶民)의 계급으로 구분되었다. 천자와 제후는 황제와 왕을 뜻하며, 대부와 사가 지배계급이었다.

문헌에 따르면, 주나라 시절 선비(士)의 무덤가에 회화나무를 심었고 과거시험의 하나인 진사시험 시기가 회화나무 꽃필 무렵인 음력 7월이었기에 괴추(槐秋)라고도

하였다. 또 과거시험 합격을 기원하는 뜻에서 사대부가에서는 회화나무를 심었으며, 이 관행은 송나라 때까지 이어져 회화나무는 사대부, 학자, 선비를 상징하는 나무가 되었다. 선비나무라고 하는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회화나무 열매는 기름을 짜 등불을 밝히는데 사용하였다. 선비가 글공부를 하려면 등불이 있어야 하고, 등불을 밝힐 기름은 회화나무 열매에서 얻었기에 선비나무라 부름직하다. 이것이 더 설득력 있어 보인다.

회화나무는 한자로 괴화(槐花)로 표기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중국 발음과 유사한 회화 또는 화나무로 부르게 되었다. 화나무를 뜻하는 한자인 槐(괴)는 고목에 붙은 울퉁불퉁한 웅이를 보고 붙인 이름으로 귀신과 나무를 합쳐서 만든 글자다. 그래서 잡귀를 물리치려는 염원으로 가정에서는 대문 입구에, 동네는 마을 어귀에 회화나무를 심었다.

양반가의 회화나무 사랑은 대단하였다. 회화나무를 집안에 심으면 학문이 높은 큰 인물이 나오고 대문밖에 심으면 잡귀가 들어오지 못한다고 믿었다. 뿐만 아니라, 출세의 길은 곧 과거시험이었고 과거시험 합격을 기원하는 나무가 바로 회화나무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 선조들은 집의 안뜰에는 큰 나무를 심지 않았다. 이는 도교사상에서 비롯된 것인데, 口는 집의 울타리를 닮았고 울타리 안에 나무(木)가 있을 경우 한자 곤궁할 곤(困) 자가 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입신출세를 위하여 회화나무만은 울타리 안쪽에 심기를 꺼려하지 않았을 정도였다.

나무를 집안에 심지 않는 것은 미신만이 아니다. 이는 실제로 과학적 근거가 있다. 집 가까이의 큰 나무는 비바람을 동반한 강풍에 부러지거나 쓰러질 경우 재산 손실은 물론, 인명 피해와 직결된다. 재산과 안전상의 문제만도 아니다. 나무가 커서 그들이 지면 햇볕차단으로 집안에는 습도가 높아지고, 높은 습도는 각종 병균의 온상이 된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집 가까이에 큰 나무를 심지 않았다.

■ 수형

회화나무는 느티나무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정자(亭子) 나무로서 수고 30m, 흉고직경 2m 이상의 노거수(老巨樹)로 자라는 수종이다.

느티나무는 가지가 질서 있게 가지런히 자라 전체적으로는 둥근 수형을 이루는데 비하여, 회화나무는 나이가 들수록 가지가 사방으로 자유롭게 뻗어 수형 또한 자유형이다.

■ 가지와 줄기

어린 가지(小枝)는 녹색으로서 피목(皮目, Lenticel)이 거칠게 발달하고 꺾거나 상처를 내면 냄새가 난다. 하부 줄기는 짙은 회갈색으로서 세로로 골이 진다. 줄기의 수피 갈라짐과 잎의 모양이 아카시나무를 닮아 회화나무를 소개할 때 「아카시나무를 닮았는데 가지가 없는 나무」라 하기도 하고, 심한 경우 「가지 없는 아카시나

무」라고 잘못 소개할 정도다.

목재는 비중이 높고 무늬가 아름다워 가구재로 이용되며, 가지와 나무껍질은 한 방에서 증기를 내어 치질치료에 쓰인다고 한다.

■ 울퉁불퉁 회화나무 노거수(남촌CC.)



■ 황백색 꽃이 만발한 회화나무 수형



■ 어린 녹색가지



■ 굵은 줄기 수피



■ 잎

잎은 기수우상복엽(奇數羽狀複葉, 홀수깃꼴겹잎)으로 길이 15~25cm의 큰 잎자루에 작은 잎이 어긋나기 한다. 작은 잎은 9~15개 내외로 달리고 크기는 길이 2~6cm, 폭 1.5~2.5cm 정도다. 작은 잎자루는 짧고 털이 있다.

잎의 모양은 계란형~좁은 계란형(난상 피침형)으로서 예두(銳頭, 끝이 **뾰족하다.**)

이고 기부가 둥글다(圓低~넓은 예저). 가장자리는 거치가 없어 밋밋하다. 잎의 뒷면은 흰빛이 도는 녹색인데 짧은 복모(復毛)가 있다.

■ 기수우상복엽(홀수깃모양겹잎)



■ 꽃

꽃은 7월 하순~8월 새가지 끝에 길이 15~30cm의 원추화서(圓錐花序)로 피고 꽃송이는 1.2~1.5cm로 연한 황색(황백색)~백색이다. 만개한 꽃잎은 나비모양인데, 상단의 넓은 꽃잎과 하단의 갈래가 지는 꽃잎으로 구분된다. 상단의 넓은 꽃잎은 중앙이 선처럼 골이 지며 아랫면은 잘린 듯 평행을 이룬다. 상단과 하단 꽃잎이 이어지는 부위에는 짙은 황색무늬(황색소)가 있다.

■ 원추화서 꽃차례



■ 나비모양의 꽃 근경



꽃은 괴화(槐花)라 하여 한방에서 약용으로 쓰인다. 꽃에는 루틴(Rutin)이라는 황색소를 20~30% 함유하고 있는데 루틴 성분은 고혈압과 동맥경화 예방, 지혈제로 쓰일 뿐만 아니라, 맥주의 색소 첨가제로도 쓰인다.

또 말린 꽃잎은 괴황(槐黃)이라 하여 종이를 노랗게 물들이는 천연물감 재료로 쓰이고, 피지 않은 꽃봉오리는 쌀알을 닮아 괴미(槐米)라고도 하며, 말려서 더운 물에 우려 차로 마신다고 한다.

■ 열매

열매는 콩과식물의 특징인 협과(莢果, 꼬투리)로서 길이 5~8cm 정도이고 다소 육질(肉質)이다. 꼬투리는 밑으로 처지고 둥근 씨앗이 줄줄이 연결되어 묵주(默珠) 모양으로 잘록잘록한 형태가 특이하다. 꼬투리는 10월에 녹색에서 황백색으로 익으며 꼬투리 속 종자는 흑갈색~검정색으로 익는다.

꼬투리는 괴각(槐角), 종자는 괴실(槐實)이라 하여 강장제로 쓰인다. 채취한 꼬투리는 잘 말렸다가 매일 5알씩 갈아서 1년을 복용하면 백발이 없어지고 2년을 복용하면 몸이 가벼워지며 3년을 복용하면 뇌를 보하고 눈을 밝게 한다고 한다.

이처럼 회화나무 쓰임새는 서양에서도 잘 알려져 「Pagoda tree」로 표기되었다. Pagoda tree는 해석하면 「돈이 열리는 나무」라는 뜻으로서 등불의 기름, 약용과 물감재료, 차와 밀원(蜜源) 등등 회화나무의 높은 쓰임새에서 나온 말이다.

■ 목주모양의 콩과수목 특징 열매 꼬투리



(2) 식재와 번식

■ 생리·생태적 특성

내한성	강	내음성	중용	맹아력	강
내건성	중(보통)~강	내염성	중	이식력	강
내습성	중(보통)	내공해성	강	생장속도	느림

■ 식재 적합지

회화나무는 토심이 깊고 비옥한 땅을 좋아하나 콩과식물 특유의 근류균(根瘤菌)이 있어 척박지에서도 잘 자란다. 그래서 건조한 토양이나 사람의 왕래가 잦아 다져진 길가의 마을 정자 목으로 많이 남아있다.

회화나무는 음지에서도 비교적 생육이 좋은 중용수(中庸樹, Intermediate species, Intermediate tree)이나 커가면서 햇빛 요구도가 높아진다. 그러므로 공원이나 도로변처럼 사방이 트여 햇볕이 좋은 곳이 생장에 유리하다.

■ 회화나무 가로수(안양 평촌)



■ 회화나무 가로수

회화나무의 생장속도는 다소 느린 편이다. 다듬지 않아도 아름다운 수형을 유지하는 나무여서 공원수와 가로수에 적합하다. 특히 공해에 견디는 힘이 강하고 내병성과 내충성 또한 강해 관리가 용이하다.

중국의 수도 북경이나 장안은 회화나무 가로수가 많기로 유명하다. 자료에 따르면, 중국에서는 한나라 때부터 청나라 시대에 이르기까지 회화나무를 가로수로 심었다고 한다. 그들이 오랜 기간 동안 회화나무를 선호한 것은 이 나무가 갖고 있는 특성 때문이다. 꽃과 열매, 가지와 줄기의 높은 쓰임새가 중국인들의 사랑을 받는 것이다.

우리도 회화나무 가치를 좀 더 높이 평가해야 하겠다. 특히 밀원(蜜源)이 부족한 여름철에 황백색 꽃이 나무를 뒤덮어 도시 미화는 물론, 양봉가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 번식

종자나 삽목(뿌리 삽목)으로 번식시킨다. 종자는 마르면 싹이 잘 나오지 않으므로 채취하여 바로 파종하거나 노천매장 하였다가 봄에 파종한다. 파종할 때 40~50℃의 뜨거운 물에 하루정도 담갔다가 파종하면 60% 이상 발아한다. 발아가 다소 늦어 늦은 봄부터 여름에 걸쳐 싹이 나온다.

(3) 유지관리

■ 유지관리

전 정	불필요 (자연수형 가꾸기)	적 합 지	사질양토 ~ 척박지
시 비	불필요	병 해 총	강 (회화나무녹병, 탄저병, 줄숨꼭지벌레)
번 식	실생(종자번식, 삽목)		

■ 수형관리

회화나무는 다듬지 않고 자연수형 그대로 관리함이 좋다. 때에 따라 가지가 **밀생한 경우** 솎아주고, 비바람에 늘어진거나 찢어진 가지는 제거하는 정도가 좋다.

가지치기를 할 때 가급적 상처가 크지 않도록 주의한다. 줄기나 굵은 가지를 자를 때는 지피용기선(Branch bark ridge)과 지륜(Branch collar)을 잘 살펴 다치지 않도록 3단계법으로 자른다.

절단부위는 반드시 도포제 「티오파네이트메틸도포제(톱신페스트) 또는 테부코나 줄도포제(실바코)」 등을 발라 부후하지 않도록 한다.

■ 병해충 관리

회화나무의 치명적인 병은 녹병(*Uromyces truncicola* H. et S.)이다. 병징은 줄기와 가지에 방추형의 불룩한 혹을 만들고 병환부(혹)가 갈라 터진다. 피해 줄기와 가지는 생육이 떨어지고 쉽게 부러진다.

잎은 7월부터 뒷면에 황갈색 가루덩이(여름포자)가 생기고 9월경에는 흑갈색(겨울포자)으로 변한다. 피해가 심한 나무는 작은 흔들림에도 잎이 떨어져 조기에 낙엽되는 병이다.

병든 나무는 녹병약 500~1,000배액을 10일 간격으로 3~4회 이상 병환부에 바르거나 뿌려주고 나무 전체에도 살포한다. 낙엽은 수거하여 소각하거나 땅에 묻고 피해가지 또한 초기에 잘라 소각한다.

(4) 골프장 조경

■ 진입로 가로수

골프장 정문주변이나 진입로에는 다소나마 여유 공간이 있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골프장을 상징하는 조형물이나 경비실 주변의 공간, 진입로 좌우 등이 식재공간이다.

골프장 조형물이나 경비실 주변공간에는 독립수로 심고, 정문에서 클럽하우스 전까지의 진입로에는 가로수로 식재함이 좋다. 조형물 주변공간의 독립수 식재는 대문 밖의 식재 형상이 되고, 가로수는 대문 안의 식재 형상이 된다. 대문 안팎의 회화나무는 장차 복을 들이는 나무로 자랄 것이다.

회화나무는 거목으로 자라므로 가로수 식재간격은 7~8m 이상이 좋다. 가로수는 커가면서 수목 터널이 되고 여름에는 꽃과 향기가 골프장에 가득할 것이다.

■ 진입로의 수목 터널 가로수



■ 골프장 녹음수

클럽하우스 주변의 여유로운 공간이라면 어디에 식재하든 어울리는 나무다. 나무 아래는 앉아서 쉴 긴 의자 하나면 족하다.

아웃코스 출발지점, 티잉그라운드 입구 또는 주변, 경기진행이 다소 지연되는 파 3홀(Short hole) 등에서 경기에 방해되지 않을 거리의 장소에 식재하면 좋다. 이곳

에도 나무 아래 긴 벤치 하나면 충분하다.